가야史 바로잡기에 김해불교계 나서다

김해 가야비대위 2월 7일 김해시청서 기자회견 개최

비대위 혜진 · 도명 스님 등 기관홈페이지 역사표기 수정 및 임나 가야 대한 학계 주장 비판

성낙두 경남지사장



'김해 가야사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 는 2월 7일 김해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야 정체성 확립과 역사인식 수정을 촉구했다.

김해 가야불교문화를 포함한 가야史를 바로세우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김해 가야사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가야비대위)는 2월 7일 김해시청에서 가야 정체성 확립과 일본 식민사관에 바탕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수정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은하사 前 주지 혜진 스님, 가야불교연구소장 도명 스님, 민홍철 가야비대위 공동대표(국회의원), 김성우 가락경상남도 종친회장, 김종간 前 김해시장을 비롯해 가야비대위 고문단 및 운영위원, 총무위원,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가야사 바로잡기 행동으로 △경상남도와 김해시청 홈페이지의 가야사 왜곡부분 수정 △중앙박물관 가야 연표 표기 수정 △역사 교과서의 가야사 정립 및 등재 △임나 가야 허구 입증 및 수정을 제시하고 이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은하사 前 주지 혜진 스님은 "가야불교가 융성한 김해지역에는 당시 사찰들도 많이 건립됐다. 은하사를 비롯한 이들 사찰에는 가야불교를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유물과 기록들이 존재한다"며 "하지만 그럼에도 가야사를 부정하는 잘못된 역사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고자 김해불교계와 시민사회연대가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비대위 고문을 맡고 있는 가야불교연구소장 도명 스님은 "가야사는 전반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특히 임나는 가야가 아니다. 서기 42년 가야가 건국됐지만 부정되고 있다"며 "깨어있는 사학으로 가야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기득권의 역사인식을 혁파하고 올바른 역사, 불교사 정립에도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김해불교계와 가야불교연구소, 가야문화진흥원 스님 및 시민사회 등은 함께 노력해갈 것"이라고 서원했다.

김종간 前 김해시장은 "강단사학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21세기 역사바로잡기가 진행되어야 한다. 가야사 유네스코 등재를 환영하지만, 임나가야설 등으로 왜곡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민홍철 가야비대위 대표는 "일본측 학설에 반하는 내용으로 '임나는 가야' 라는 것이 주장되는데 오히려 임나는 일본 서남부 지역에 있는 것으로 역사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가야비대위는 끝으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서기 42년으로 되어 있는 가야 건국에 대한 각기관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하고, 유네스코 예비등재된 가야고분군 설명 또한 잘못 기재된 부분이 많다"며 활동을 천명했다.

광주불교연합회, 광주 붕괴현장 위로방문

2월 7일 재난안전본부 찾아 간식 지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광주불교연합회 스님들이 희생자 천도 및 안전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는 2월 7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 마련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위로 방문했다.

광주불교연합회 대표단은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해 서대석 서구청장과 면담하고, 사고 현장에서 지원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소방서119 수습대원, 경찰, 시청, 서구청 담당 공무원 등도 위로했다. 이날 스님들은 광주 소원정사, 원효사, 복암사, 광덕사,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등의 후원으로 마련한 500명 분의 간식(떡, 과일)을 구조활동과 지원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구조 당국에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여한 도성 스님, 도계 스님, 해청 스님, 상진 스님 등은 "날씨가 추운데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 가족들의 마음도 더 추울 것 같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용섭 시장도 "불교계에서 마음을 내주어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해인사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사부대중이 새해 불교중흥을 발원하고 있다.

법보종찰 해인사 2월 5일 신년하례식 봉행

방장 원각 스님 "시비장단 벗어난 삶" 강조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는 2월 5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신년하례식을 봉행했다.

신년하례식에서는 각 말사에서 참석한 교구신도회 소개와 함께 방장 스님의 신년 덕담과 선물 하사, 주지 스님의 임인년 교구신도회의 역할과 당부의 말 등이 진행됐다.

방장 원각 스님은 "코로나를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본성의 삶 속에서 시비장단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자"는 덕담을 내렸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심재상 해인사 신임 신도회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가람수호와 지역포교를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지리산 천은사 지역사회 나눔실천

2월 7일 구례군청 찾아 900만원 물품 전달



천은사 주지 대진 스님을 비롯한 천은사 대중들이 구례군청에 물품을 전달했다.

지리산 힐링사찰로 거듭나고 있는 구례 천은사(주지 대진)가 지역사회 나눔실천에 나섰다.

천은사는 2월 7일 구례군청에 백미 2000kg과 성금 300만 원 등 총 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대진 스님은 전달식에서 "지난해 6월 천은사에 부임했지만 코로나19로 사찰 운영이 쉽지 않다. 사찰도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못해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서울 도선사에서 마음을 내줘 이번 나눔의 인연이 이어진 것 같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부한 기금과 물품은 구례군노인요양원, 구례군장애인복지관, 화랑그룹, 나눔가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천은사는 지난 2019년 오랜기간 지역민들과 마찰을 빚었던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고, 도량정비와 기도를 통해 지역사회 힐링과 나눔사찰로 거듭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국제포교사회 충청지부 창립, 청주시에 거점

2월 12일 충북지역단 사무소서 창립…대경 · 부울경 이은 세번째

조계종 국제포교사회의 전국조직화 사업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이재홍)는 2월 12일 청주시에 위치한 충북지역단 사무소에서 충청지부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국제포교사회 충청지부는 대경(대구 · 경북)지부와 부울경(부산 · 울산 · 경남)지부에 이은 세 번째 국제포교사회 지부로서 향후 충청 남 · 북 회원들의 적극적인 국제포교 활동의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충청지부 창립기념 법회서는 삼귀의와 반야심경에 이어 경과보고, 국제포교사회 이재홍 회장의 축사, 김용언 초대 지부장의 기념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홍 회장은 "충청지부 창립을 축하하고, 국제포교사회가 추진 중인 세계 여러 불교 단체들과의 교류 협력에서 충북지부가 본회와 힘을 합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회원 상호 간에 협력하고 단합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김용언 초대 지부장은 "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 간 친목이 우선 중요하다"며 "서로를 잘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함께 상의하여 구체적인 활동 목표와 내용을 세워나가겠다"고 창립 첫 해의 바람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전통불교 태고종 종도모집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기이 하도다. 저들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있도다"
그리고 이 우주 그 자체가 법계 즉 부처의 나라임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한히 개량될 수 있고, 무량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말씀과 가르침에 뜻을 같이하실 종도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입종서류
① 주민등록 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양식) ③ 주민증(앞 뒤 사본)
④ 사찰 내 외부 사진 1부 ⑤ 증명사진 3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급은 특별예우!

(사)전통불교 태고종 총무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54번길 183-101
전화 031)847-9338 / 팩스 031)842-9337 / 총무원장실 직통 010-6242-6664

출강 및 통신 2022학년도 제31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31년의 전통과 법사 양성 역량 축적을 자랑과 긍지로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품수를 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입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업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미디어 통신강좌)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2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3층 (견지동, 한선빌딩)
http://pubsa.net FAX : 02)737-5305